

당뇨병 대상자의 관리실태와 혈당 조절

김지수, 이정애*

*한림성심대학 간호과

■ 연구배경

당뇨병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비만 및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해마다 발생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은 남자 20.9명, 여자 20.5명으로 사망순위 5위로 나타났다. 당뇨병에서 합병증 발생은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와 관계되므로 적극적인 혈당관리는 합병증을 감소시켜 당뇨병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따라서 질병 상태의 완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 관리 교육을 통한 꾸준한 혈당 조절 및 합병증 관리가 요구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당뇨병 대상자의 관리실태를 파악한다.
- 2) 당뇨병 유병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파악한다.
- 3) 일반적 특성과 관리실태에 따른 혈당 조절의 차이를 확인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4기 1·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병 유병자 876명 중 당화혈색소 수치가 있는 81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당뇨병은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의해 '공복 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혈당 강하제를 복용 혹은 인슐린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병 관리실태 및 혈당 조절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과 관리실태에 따른 혈당 조절의 차이는 X^2 test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당뇨병 관리실태 중 혈당 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88.3%,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11.7%로 나타났으며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당뇨병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6%,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79.4%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눈의 합병증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안저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0%, 그렇지 않은 경우는 61.0%로 나타났으며, 신장 합병증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미세 단백뇨 검사를 받은 경험은 41.8%, 그렇지 않은 경우가 58.2%로 더 높게 나타났다.
- 2)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혈당 조절이 되는 군은 30.9%,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군은 69.1%로 나타났다.
- 3) 일반적 특성 중 생애주기에 따른 혈당 조절률은 성인기 44.4%, 중년기 27.4%, 노년기 33.0%로 나타나 중년기의 혈당이 가장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7.658$, $p=.022$). 하지만 성별, 교육수준, 가구의 월평균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혈당 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관리실태 중 최근 1년 이내 안저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률은 30.2%, 최근 1년 이내 안저 검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혈당 조절률은 69.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7.194$, $p=.008$). 하지만 치료 및 교육 여부와 미세 단백뇨 검사에 따른 혈당 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결론

본 연구결과 다수의 유병자가 당뇨관리 교육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위한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당뇨병 관리 실태가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리실태 중 안저 검사 여부에 따른 혈당 조절의 차이는 확인되었지만, 치료 및 교육 여부에 따른 혈당 조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을 통한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당뇨병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